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5.6.5.(목) / 총 2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본부 김민수 본부장(051-797-4787) • 해양연구본부 전형모 연구위원(051-797-4761)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제영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으로 가는 바닷길 열고 인공지능(AI)으로 해양수산 미래 그린다

- ‘북극항로지원단’ 및 ‘해양수산AI전환지원단’ 신설·운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 이하 개발원)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두 개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북극항로지원단’과 ‘해양수산AI전환지원단(이하 AX지원단)’은 각각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둔 연구 조직으로 개발원의 미래지향적 연구와 정부 정책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북극 해빙의 가속화와 함께 미·중·러 간 북극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극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개발원은 극지전략연구실을 중심으로 ‘북극항로지원단’을 구성하고, 『북극항로 진출 중장기 로드맵(2026~2050)』 수립에 착수한다.

로드맵을 통해 정책, 산업, 외교·안보, 지역경제 발전(GRDP),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조례 및 제도 검토,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포럼 개최 등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개발원은 ‘AX지원단’을 신설하여 해양·수산·해운·항만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X지원단은 내부적으로 정책 동향 분석, AI 기반 데이터 검증, 교육 및 매뉴얼 작성, 챗봇 개발 등을 수행하며, 외부적으로는 해양수산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 전략 수립과 민간기업 지원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개발원은 두 조직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략적 자산과 디지털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며, 미래산업과 국가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북극항로는 조선, 해운, 항만 등 해양산업뿐 아니라 안보와 기후변화가 맞물린 21세기 전략 자산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 주권과 직결된 과제”라며 “개발원은 실효성 있는 로드맵 수립과 정책 제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북극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해양수산 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핵심 동력”이라며 “AX지원단이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민수 기획조정본부장(051-797-4787) <guan72@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청사 사진(JPG 파일 별도 송부)

